

KP케미칼, 이소프탈산도 일류상품!

산자부, 2003년 상반기 45개 추가선정 ... 독점품목 시장점유율 급상승

TFT-LCD용 편광판, 이소프탈산, ASA 등 2003년 상반기 세계일류상품 19개와 차세대 일류상품 6개가 선정됐다.

산업자원부는 제4차 세계일류상품 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철두)를 개최하고 2003년 2월17일부터 2월28일까지 신청된 93개 품목에 대해 13개 업종별 추천위원회의 1차 심사를 거쳐 추천된 55개 품목을 심사한 끝에 세계일류상품 19개와 차세대 일류상품 6개 등 45개 품목을 신규로 선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2001년 9월부터 현재까지 4차례의 선정 과정을 통해 총 326개의 세계일류상품이 발굴됐다.

화학분야에서는 LG화학이 편광소재인 PVA필름과 TAC필름을 사용해 만든 두께 310 μ m의 다층 복합필름을 이용한 TFT-LCD용 편광판이 선정됐다. 또 생수 및 탄산음료 등 탄산압이 포함된 음료 저장용기에 사용되는 IPA(Isophthalic Acid)를 생산하는 KP케미칼과 ABS보다 내수성이 월등히 뛰어나고 내충격성, 내화학적, 가공성이 우수하며 획기적으로 다양한 컬러를 가지는 ASA(Acrylic Styrene Acrylonitrile)를 선보인 LG화학과 제일모직이 각각 세계 일류상품 생산기업에 올랐다.

ITW특수필름은 극박폴리에스터필름 표면에 열전사 특성을 가진 카본 잉크를 비롯한 기능성 레이어를 코팅한 바코드 프린터 감열전사리본이 선정됐다.

세계일류상품 및 차세대 일류상품 선정 화학제품(2003.1H)

(단위: 100만달러)

구 분	수출 (2002)	주요 경쟁기업	세계시장 점유율	국내 생산기업
TFT-LCD용 편광판	121.0	Nitto Denko, Sanritz, Sunitomo(일본)	15(2위)	LG화학
이소프탈산	30.0	BP(미국), Agic(일본)	16.7(2위)	KP케미칼
ASA	10.4	BASF(독일), Mitsubishi Rayon(일본)	20(2위)	LG화학/제일모직
감열전사리본	29.2	limak(미국), Armor(프랑스), Sony(일본)	12.7(3위)	ITW특수필름
에이즈 진단키트	0.9	Abbott, Acon(미국), J-mitra(중국)	4.9(5위)	에스디/녹십자
알로에	120.0	Terry Laboratories, Florida Food Products(미국)	40(1위)	남양알로에
Threonine	7.0	Degussa(독일), Ajinomo(일본), ADM(미국)	100	CJ
내오염성 역삼투 분리막	4.0	필름텍, 오스모닉스, 코크(미국), 일동전공(일본)	100	새한

세계일류상품 발전심의위원회는 그동안 선정됐던 일류상품 인증기업에 대한 2002년 수출실적 조사결과, 선정 품목들의 수출 증가율은 12.4%로 전체수출 증가율 8%를 상회했으며 차세대 일류상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수출이 63%나 증가하면서 마케팅 지원 효과를 크게 본 것으로 분석했다.

시장점유율도 평균적으로 2001년보다 국내에서 7.4%p, 해외에서 5.1%p 증가했으며, 특히 독점적이고 특화된 품목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 성장 속도가 국내에서는 25%에서 44%로, 해외에서는 7%에서 22%로 두드러지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3/26>